

별장 유람기

시끌벅적 왁자지껄 夜! 불거리 많구나



12일 열린 대인예술아시아장을 찾은 시민들과 타악그룹 '아나포' 공연 모습.



<별장 프로젝트 제강>

시끌벅적, 왁자지껄. 시장을 찾은 이들에게선 호기심이 가득했다.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환호성을 지른다. 맛난 먹을거리를 앞에 둔 이들의 얼굴은 행복해 보인다. 순식간에 그림을 완성해내는 예술가들의 모습엔 탄성이 터진다. 빠질 수 없는 건 사진 찍기. 재미있는 벽화, 예술작품 앞에서 연신 플래시가 터진다.

12일 오후 7시30분 지인과 함께 대인시장을 찾았다. 대인 예술 아시아장 '별장'이 열리는 날이다. 오랜만에 찾은 아시아장은 예년보다 활력이 넘쳤고, 불거리가 풍성해졌다. 기존에 아시아장을 운영팀 이외에 대인시장이 중소기업의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에 선정돼 '야말이 시장' 등 두 개 프로젝트가 동시에 돌아가고, 협업 관계가 이루어져서다.

은세공, 예코백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한적한 좌판을 지나 가장 먼저 만난 건 '별장 게릴라 콘서트' 현장이다. 경쾌한 재즈음악이 흘러나오고, 관객들의 호응이 이어졌다. 앙코르 요청에 밴드는 'Feel so good'을 들려주며 분위기를 높였다.

이날 아시아장에 참가한 팀은 150개에 달했다. 여기에 기존 상인들까지 밤 늦도록 가게 문을 활짝 열어두니 말 그대로 불야성이다. 이들이 가지고 나온 물품은 다양하다. 각종 예술작품, 양초, 옷, 가방, 추억이 담긴 딱지, 수제 쿠키, 액세서리 등등.

'한평 갤러리'는 대인예술시장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이다. 서영실·김혁 등 젊은 예술가들이 참여한 '이상향'전이 진행중이고, 수작업을 하는 예술가들 공동 작업 공간인 '메이커스 스튜디오'에서 만든 작품들도 만날 수 있었다.

'다다' 앞은 아프리카 음악을 연주하는 젊은 뮤지션 '아나포'의 열기로 뜨거웠다. 관객들의 환호성에 앙코르가 계속됐다.

금강산도 식후경. 넘쳐나는 먹을거

그래피티 작가 알렉스는 자기 아들을 캐릭터로 활용해 셔터와 계단에 재미있는 그려둔 그림들이 유쾌하다. 그림 '짓구'가 시민들과 함께 만든 대문 프로젝트도 인상적이었다.

'하문순 아집' 벽화를 보고 난 후 참외 한바구니를 샀다. 하문순 아집에게서다. 아집의 리어카는 바로 아집의 모습을 담은 벽화 옆에 있다. 40년 동안 수레 노점상을 했고, 5·18 때는 대인시장 상인들과 함께 주먹밥을 나눠주기도 했다. 언제제 작품이나 물었더니

메인 거리는 사람에 치여 제대로 즐기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본전통에서 잠시 비껴나 보는 것도 좋다. 대인시장 주차장 쪽에 자리한 '웰컴센터'는 쉬어가기 좋은 곳이다. 대인문화관광형시장장육성사업단이 만든 손님맞이 공간으로 각종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 구석 구석 아가자기한 소품들도 많고, 재미있는 참여 프로그램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웰컴센터앞에서는 '콘서트담'도 열렸다.

자발적인 공연들도 이어졌다. 대인시장 입주 작가 최소영씨가 '배정'과 함께 하우스 콘서트 '월데이 페스티벌'을 진행했고 정나란씨는 자신의 창작 공간에서 힐링 공연을 가졌다.

사실, 인파가 너무 많이 몰리다보니(금요일에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한다) 금방 지치게 된다. 골목이 많은 시장의 장점을 살려 주차장 외곽 등 한적한 곳을 특화된 프로그램 진행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인디 밴드 공연 등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좋지만 실용적 퍼포먼스 등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부모들의 관심사항인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행사 등도 외곽에서 진행,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듯하다.

두 시간 동안 대인시장에서 잘 놀았다. 다음 아시아장은 오는 8월 8~9일, 9월 4~6일, 10월 17~18일 열릴 예정이다. 문의 062-613-34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게릴라 콘서트에 관객도 상인도 '들썉' 숨겨진 공간 전시회 찾는 재미도 '쏠쏠' 한적하게 즐길 골목 특화프로 생겼으면

리 속에서 튀김과 열무 국수, 오뎅을 선택했다. 튀김을 만드는 아주머니는 콘서트장에서 '내 사랑 내 곁에'가 흘러나오지 노래를 따라 부르고 몸을 흔들며 열심히 튀김을 만들어냈다.

대인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벽화는 20여개다. '오라차차 장미란' 등 유명한 작품들이 많다. 대인시장을 몇 차례 찾았던 터라, 거의 봤을 거라 생각했는데 신작들도 눈에 띄었다. 무작정 걷다 '발견'한 것도 있고, 안내지도도 보며 찾아간 곳도 있다. 전현숙 작가의 '꽃들이 춤을 추어라' 2012년 태극의 유명

2009년 작품이라며 이제 많이 늙었다고 웃었다. 전고필 별장 예술감독이 "지난번 수익금을 좋은 데 쓰라며 내놓으셨다"고 한마디 거들었다.

대인시장을 둘러보는 재미 중 하나는 구석구석 숨겨진 공간들을 찾아보는 거다. 이곳 저곳 골목으로 연결돼 있어 재미있다. 한평 갤러리 바로 옆 골목에 자리한 '어떤날 연구소'에 들러 주인장이 세계일주를 하며 찍은 멋진 사진들을 감상했다. 또 다른 골목에 자리한 갤러리 미테 우그로, 무료 인생 상담을 해주는 코너도 눈길을 끌었다.

2014 이탈리아 국제합창제 대상 기념

그라시아스 합창단 광주 콘서트

오늘 오후 7시20분 DJ센터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14일 오후 7시20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공연한다.

이번 콘서트는 2014 이탈리아 리바 델 가르다 국제합창제 대상, 2014 50회 스위스 몽트리 국제 합창제 1위 및 최우수 관객상을 수상한 기념으로 마련됐다.

'그라시아스 콘서트'는 국제청소년연합이 광주, 대구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월드문화캠프' 기념행사의 하나로써 진행된다.

2000년도에 창단한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2009 제주 국제 합창제 대상, 2010 부산 국제 합창제 대상을 수상했다.

현 러시아 공훈예술가이자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교수 보리스 아발란이 지휘를 맡은 이번 콘서트는 웰리스트 드미트리 예료민(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교수)의 첼로 연주로 문을 연다.

이어 영화 '윈스 어떤 어 타임 인 아메리카'에 삽입된 '데보라의 주제'가 연주되며 박진영 그라시아스 합창단 솔리스트가 푸치니 '라보엠' 중 '내 이름은 미미'를 선보인다.

또 테너 우테지, 오바울 등이 뮤지컬 '넌 오브 라만차'의 '이룰 수 없는 꿈'을 들려주며 피아니스트 이고르 레베젠(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박사과정 학장)이 프랑스의 '헝가리 무곡 1번'을 들려준다. 문의 062-655-72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CNS 금관5중주단이 전하는

오페라·뮤지컬 삼입곡



광주문예회관 화요일예술무대... 내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특별 프로그램 '화요일예술무대'가 CNS 금관5중주단을 초청했다.

1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이번 공연에서는 오페라와 뮤지컬 삼입곡들로 '갈라콘서트'를 꾸민다. 레퍼토리는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서곡, 모차르트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 아리아',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만발박사의 노래', 푸치니의 '라 보엠' 중 '뮤제타의 왈츠' 등이다.

또 '레 미제라블'과, '오페라의 유령', '사운드 오브 뮤직' 뮤지컬 넘버와 영화 '겨울왕국' 삼입곡도 만날 수 있다.

트럼펫의 이우신·추선호, 트롬본 서용일, 튜바 김세훈, 호른 이은범(객원)씨가 무대에 오른다. 지난 2004년 창단, 올해로 꼭 10년을 맞은 CNS 금관5중주단은 'Classic and Swing'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클래식 음악의 정통성과 대중성을 함께 추구하고 있다. 문의 062-613-8354. /김미은기자 mekim@

since 1982

창업 32주년 K 국제보청기

www.kjhr.com

대한민국, 미국, 독일, 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